

갑을 관계, 나도 을이다



이도희

충남대학교 초빙교수

- 갑을관계에 대한 구체적 방안 마련 고심 ... 소송 대비 증거자료 꼼꼼히 챙겨야(서울경제, 2013.5.28)
- 재계, 5대 윤리지침 선포 ... 왜곡된 ‘甲乙관계’ 청산(아시아경제, 2013.5.28)
-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갑을 나라’ 역사(한겨레, 2013.5.26)
- 공공기관 수퍼갑 제도개선 시급(미디어다음 2013.5.28)
- 국방부 ‘갑을관계’ 표기 없앤다(폴리스뉴스, 2013.5.15)
- 뚜렷한 갑을관계... “갓다 받쳐야했다”(한겨레, 2013.4.5)
- “갑을관계는 없다”...더불어 성장 이제는 ‘필수’(국민일보, 2013.3.28)

최근 우리사회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단어가 바로 ‘갑을관계’가 아닐까 싶다. 갑을관계..... 나 역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면서 고용계약서에 사인(sign)하였었고, 그 고용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그 계약서를 유심히 살펴보고, 그곳에는 나의 이름 옆에 ‘이하 “을”이라고 한다’로 적혀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도 을이다.

갈등(葛藤)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먼저 찾아보니, “쥘(葛)과 등나무(藤)가 서로 복잡하게 얽이는 것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서 의지나 처지, 이해관계 따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을 일으킴을 이르는 말”, 심리적 어원으로는 “개인의 정서나 동기가 다른 정서나 동기와 모순이 되어 그 표현이 저지되는 현상”, 불교적 어원으로는 “번뇌”와 “망상”을 이르는 말이라 설명하고 있다(daum 어학사전)

따라서 갈등은 인간사 속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의 하나이고, 이러한 갈등을 매일매일 해결해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네의 삶이기도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루하루 일상을 보내면서 우리는 끊임없는 문제와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갈등의 연속을 경험하고 있다. Peter Drucker는 "조직내에서 진화하는 유일한 것은 무질서, 갈등 및 역효과(malperformance)뿐이다"라고 갈등의 존재 이유를 말하였다. 다만, 그 존재의 이유가 긍정적이어야 함을 담보할 때, 우리의 삶은 좀 더 윤택해질 것이고, 발전지향적이게 될 것이다.

앞서 나의 경우와 같이, '갑'과 '을'의 사용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계약서에서 이다. 즉, 계약당사자들을 각각 '갑'과 '을'로 지칭하고 상대적으로 일과 돈을 주는 높은 위치의 계약자를 '갑', 낮은 위치의 계약자를 '을'이라 한다. 그래서 '을'은 갑에게 상대적으로 약자가 되고 '갑'은 그렇게 강자가 되어, 갑과 을 사이에는 끊임 없는 갈등으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들의 갈등이 그 조직의 진화를 위한 긍정적 효과로 이어진다면 갈등은 존재의 이유가 있다.

그러나 최근 그 약자인 '을의 반란'이 시작되었다. 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결국에는 '갑을관계'라는 표현이 없어져야 한다고까지 공론화되기에 이르렀다. 이쯤에 '을'의 편에서 '갑'에 대응하고, '갑'과 '을'이 상생할 수 있는 '갈등관리' 조직의 역할 중요성을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즉, 갈등관리 및 갈등관리위원회의 존재의 이유는 '을'을 돕고, '갑'이 제 '값'을 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중재 및 조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제도적 차원의 갈등관리를 위하여 2007년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정(대통령령 제19886호, 2007.2.12, 제정, 이하 "규정")을 출발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본 규정에서는 법률제정의 이유로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과 책무, 갈등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중앙행정기관과 국민이 정책의 입안, 결정, 집행단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대화와 타협, 참여와 협력을 통해 원만하게 예방하거나 해결하는데 필요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 하고 있다. 또한, 갈등예방 및 해결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규정, 제2장 갈등예방 및 해결의 원칙)

- ① 자율해결과 신뢰확보 원칙
- ② 참여와 절차적 정의 원칙
- ③ 이익의 비교형량 원칙
- ④ 정보공개 및 공유의 원칙
- ⑤ 지속가능한 발전의 고려 원칙

따라서, 갑과 을의 갈등관리 및 해결을 위해서는 상기 규정의 내용에서와 같이, 신뢰확보, 주민참여지향, 공익실현 및 지속성장 가능성 제고 등을 담보해야 한다.

갑이 영원한 갑일 수 없고, 을이 영원한 을일 수는 없다. 갑이 을이 되고, 을이 갑이 되는 순환적 공생을 제고한다면, 서로를 위한 상생적 갈등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누구든 을이 될 수 있고, 갑과 을이 맞닥뜨림해야 할 갈등관리는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갑도 을이 될 수 있다.